

사회

자퇴·전과 3,115명 이공계생 이탈 심각

〈轉科〉

광주·전남 4개 국립대 3년간... 과학·기술 인력 부족 우려

광주·전남지역 4개 국립대학에서 최근 3년간 자퇴하거나 비이공계로 전공을 바꾸는 등 이공계를 떠난 학생들이 3천115명에 달해 '이공계 이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공계 위기는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과학·기술 인력지원의 부족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25일 전국 각 국립대학으로부터 '최근 3년간 대학별 자퇴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발표한 '이공계 재학생들의 이공계 이탈분석자료(체육대·교대 제외)'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07~2009) 전남·목포·순천·목포해양대 등 광주·전남 4개 대학에서는 2천848명이 자퇴하고, 308명이 비이공계로 전과해 총 3천115명이 이공계를 떠났다.

순천대는 1천272명이 자퇴하고, 160명이 비이공계로 전공을 바꿔 총

1천432명이 이탈해 전국 27개 국립대학 중 두 번째로 많았다. 전남대는 이탈자 수가 1천49명(자퇴생 908명+전과생 141명)으로 3위였으며, 목포대 22위 492명(자퇴생 485명+전과생 7명), 목포해양대 26위 182명(자퇴생만 182명) 등의 순이었다.

이중 전체 자퇴생 가운데 이공계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목포해양대가 92.4%로 광주·전남 국립대 중 가장 높았고, 순천대 69.2%, 전남대 66.5%, 목포대 49.9% 등이었다.

특히 전남대는 9개 지역 거점대학(전남·전북·서울·강원·제주·충북·충남·경북·부산대) 중 이탈자 수(1천49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이공계 이탈 심화는 국가 발전의 추진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전의 필수적인 과학 인력, 즉 '사이언티스트 키즈(Scientist Kids)'의 감소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지역은 물론 국가 전반에 걸쳐 인력 부족 사

태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은 "대학생 이공계 이탈 심화는 중국에는 과학기술 인력 감소로 이어져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이공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며, 특히 타겟별보다 높은 이공계 등록금 인하, 장학금 수혜율 제고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27개 대학에서 총 1만 9천695명의 이공계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비이공계로 전공을 바꾸는 등 이공계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퇴한 학생은 1만 6천899명으로 같은 기간의 전체 자퇴생 2만 7천492명 가운데 61.5%를 차지한다. 또 비이공계로 전과한 학생은 2천796명이었다. 대학별로는 부경대가 1천466명(자퇴생 1천466명+전과생 442명)으로 이공계 이탈자 수가 가장 많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중·고생들 '교복 나눔' 24일 광주시 북구청사 3층에서 열린 '교복 나눔 행사'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고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복 700벌이 교환 또는 판매됐다.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 성금으로 기탁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험 시간 참아달라” 요청 나몰라라 고교 앞 마트 입점 축하쇼 폭죽 ‘펑펑’

광주 남구... 학부모 항의·경찰 출동 소동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2일)을 앞두고 지난 23일 치러진 모의고사 시간에 광주의 한 고교와 인접한 대형 마트가 입점 축하행사를 벌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 23일 이 마트에 입점한 의류매장은 휴일인 25일에도 유명 탤런트 사인회를 여는 등 소음을 유발, 학부모의 잇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25일 광주시 남구 대광여고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와 직선거리로 100m 이내에 있는 빅시티 마트에서는 지난 23일 13개 의류브랜드로 구성된 복합 의류매장인 '조이 코오

롱' 입점 축하행사가 열렸다. 마트와 입점업체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축하 폭죽이 발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학교측과 고3 학부모 등은 "수능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고3 수험생들을 위해 물론 휴일에도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이 코오롱 측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입점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가진 행사인 만큼 주민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와 조이 코오롱 측의 입점 축하쇼로 모의고사를 망쳤다. 모의고사를 통해 자기실력을 점검하기는 커녕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광여고 관계자는 "수능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고3 수험생들은 주말은 물론 휴일에도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이 코오롱 측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입점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가진 행사인 만큼 주민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 원전 5호기 제어봉 고장 한때 가동 중단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가압경수로형 5호기(100만kW급)가 제어봉 고장으로 한때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는 "5호기가 23일 오후 10시 11분께 구동전압이 떨어지면서 제어봉들의 위치에 미세한 편차가 생겨 발전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영광원자력본부는 제어봉 제어계

통 전력 제어함을 대상으로 정비를 마치고 22시간여 만인 24일 오후 8시 30분께 발전을 재개했다. 5호기는 출력증발 과정을 거쳐 25일 중 100만kW 전 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장은 발전소 안전성이나 외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가벼운 것으로, 국제원자력기구 사고·고장

등급 0등급에 해당한다고 원전 측은 밝혔다.

한편 영광원전 4호기도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계획예방 정비를 위해 발전 정지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핵 연료봉 2개가 파손되고 열전달 완충관이 이탈한 사실이 발견돼 원전 측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담양 군부대 인근 산불

25일 오후 2시20분께 담양군 대전면 육군 기계화학교 인근 산에서 불이 나 임야 수ha를 태운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지난 22일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의 불씨가 되살아나 산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담양=노정훈기자 cjoh17@

“임대전환 집값 하락” 주민들 패소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지 내 미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집값이 떨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25일 광주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이용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 입주자 79명이 A 건설사와 토지구획공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

○주민들은 "A사가 2007년 분양 당시 총 282가구 중 86가구만 분양돼 자 주택공사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통해 지난해 11월 100가구를 임대로 전환하는 바람에 집값이 하락했다"며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입주자들이 손해를 본 것은 미분양 사태 속에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결과로, 전적으로 임대전환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교통문화지수 82점

7대 도시 중 3위... 사고 위험성은 최고

올 들어 광주의 교통문화 수준이 다소 개선됐지만 교통사고 중상자 비중은 전국 대도시 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09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올해 교통문화지수는 81.66점으로, 서울과 광역시 등 전국 대도시 7곳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는 올해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발족 등의 영향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등 교통문화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보행자들의 신호준수율을 나타내는 보행행태가 지난해 4위에서 올해 2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광주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중상자 수 지수가 87.15점으로 7개 도시 중 가장 높았다. 교통의 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 가능성은 타 도시에 비해 높은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광주 시내버스 이용 급증

준공영제 효과... 하루 49만9천명

지난 2006년 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대중교통 이용객이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2009년 9월 기준 버스운행 관리시스템(BMS) 자료 등을 통해 이용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준공영제 이전 대중교통 이용자가 하루 평균 46만2천297명에서 지난달 현재 49만8천931명으로 3만5천명 이상이 늘어났다.

특히 마을버스 이용자는 지난 2006년 하루 평균 6천540명에서, 올해 9월에는 그 2배인 1만2천204명으로, 지하철 이용자도 같은 시기 2만9천652명의 1.5배가 넘는 4만7천132명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요인으로는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 등의 통합 환승 체계 구축을 통해 편의를 크게 향상시킨데다, 수요 중심의 노선 조정·신설 등 적극적인 보완대책 추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민교육진흥원

새로운 마음으로 큰 꿈을 품고
더 큰 사랑을 베풀어주세요

2009년 10월 26일(월) 10:00 ~ 11:00
 2009년 10월 26일(월) 11:00 ~ 12:00
 2009년 10월 26일(월) 13:00 ~ 14:00
 2009년 10월 26일(월) 15:00 ~ 16:00
 2009년 10월 26일(월) 17:00 ~ 18:00

1. 교육·문화·복지·환경 분야
2. 교육·문화·복지·환경 분야
3. 교육·문화·복지·환경 분야
4. 교육·문화·복지·환경 분야

문의: 02-2600-1111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www.nec.or.kr